

평 화 선 언

“아이고 죽었네,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만 하는 거여”

65년 전의 오늘,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피폭자, 그리고 비명의 최후를 맞이한 많은 영령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이런 고통을 다른 누구에게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새로이 다짐 하며 8월 6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히로시마는 피폭자와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국내외의 지원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되었으며, 지금은 ‘세계의 모델도시’와 올림픽 유치목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기대를 걸며 피폭자가 호소해 온 메시지는 평화헌법의 기초이며 세계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입니다.

올해 5월에 열린 핵 불확산조약 재검토 회의의 성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원 일치로 채택된 최종 합의문에는 핵병기철폐를 요구하는 모든 체결국의 의향을 존중할 것,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대다수의 체결국이 기한을 정한 핵병기 철폐에 착수함을 찬성한다는 것, 핵병기 금지조약을 포함하여 새로운 법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히로시마시, 나가사키시 그리고 가맹한 도시가 4,000이 넘는 평화시장회의, 게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협정서’에 찬동한 일본 국내 3분의 2에 이르는 자치체의 주장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핵무기 없는 미래를 기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양심의 외침이 유엔에 전달된 것은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식전에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반기문각하의 리더십 덕분이며, 오바마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연방정부와 1200에 이르는 도시가 가맹한 전미시장회의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 식전에는 70개국 이상의 정부조직과 국제기관의 대표, NGO와 시민대표가 피폭자와 그 가족, 유족, 그리고 히로시마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는 지금까지 러시아, 중국 등이 참석하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대사와 영국, 프랑스대표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핵병기 철폐의 긴급성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수 많은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살려 핵병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피폭자의 소망을 그대로 세계에 전하여 피폭자의 혼과 세계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핵병기 철폐의 긴급성에 눈뜨지 못한 채 인류의 멸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현명해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핵병기 철폐를 향하여 앞장 서기’ 위해서는 우선 비핵삼원칙을 법제도와 ‘핵 우산’에서 이탈, 그리고 ‘검은 비 강우지역’ 확대 및 고령화된 세계의 모든 피폭자에게 알기 쉽고 친절한 원호대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피폭자의 염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핵병기 제로’의 세계를 이룩하고 2020년까지 ‘제로(0)의 발견’에 필적하는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길입니다. 핵 보유국의 수뇌에게 핵병기 철폐의 긴급성을 호소하고 핵병기 금지조약 체결을 선창하는 것, 모든 나라에 핵병기 등 군사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것 등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과 도시도 행동할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NGO, 유엔 등과 협력하여 지난달에 개최한 ‘2020 핵 철폐 히로시마 회의’에서 채택한 ‘히로시마 어필’에 따라 2020년까지 핵병기를 철폐하기 위한 큰 흐름을 더욱 더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폭 65주년인 오늘, 원폭희생자의 영령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내심 있는 사람들 즉, 피폭자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피폭자가 ‘살아 있기를 잘했다’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핵병기 없는 세계를 하루 빨리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잃어진 사력을 다해 수행해야만 할 책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선언합니다.

2010년 8월 6일

히로시마 시장 秋葉忠利

번역 :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